



대한민국 정권별 아동복지정책 관련 뉴스 기사 분석: K-평균 군집 분석

김은주¹ · 김성광² · 박빛나²

¹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²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Analysis of News Articles on Child Welfare Policies in South Korea: K-Means Clustering

Kim, Eun Joo¹ · Kim, Seong Kwang² · Park, Bit Na²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Wonju, Republic of Korea; ²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Wonju, Republic of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of child welfare policies and provide insights based on the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of newspaper articles. **Methods:** Articles related to child welfare policies were collected from 1990, during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o May 9, 2022,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K-Means clustering and keyword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analysis were utilized to cluster and analyze newspaper articles with similar themes. **Results:** The administrations of Kim, Young-sam, Kim, Dae-jung, Roh, Moo-hyun, and Park, Geun-hye were classified into two clusters, and the Lee, Myung-bak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lusters. **Conclusion:** South Korea's child welfare policies have focused on ensuring the safety and healthy development of children through diverse policies initiatives over the years. However, challenges related to child protection and child abuse persist. This requires additional resources and budget allocation.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children and families, including comprehensive nursing support.

Key Words: Child welfare, Child welfare policies, Clustering analysis, News articles, Text analysi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유엔은 1989년 총회에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성장 발달 과정에서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였다[1]. 이는 모든 아동은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지

만 성인에 의한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1981년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였다[2].

이 법의 제정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청소년은 성장발달 과정에서 많은 취약성을

주요어: 아동복지, 아동복지정책, 군집분석, 뉴스 기사, 텍스트 분석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21R1A2C1095530).

IRB 승인기관 및 번호: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IRB No: GWNUIRB-R2023-16]

Corresponding author: Seong Kwang Kim (<https://orcid.org/0000-0002-8029-2722>)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150 Heungeop-myeon, Namwon-ro, Wonju 26403, Republic of Korea

Tel: +82-33-760-8640 Fax: +82-33-760-8641 E-mail: ksk1677@naver.com

Received: 1 September 2023 Revised: 16 November 2023 Accepted: 16 November 202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it can be used and re-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

경험한다[3]. 특히 아동·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이러한 취약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의 초기 발달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3]. 아동의 건강은 가족의 양육 습관, 영양 상태, 학교의 교육 수준, 그리고 정부의 보건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3].

아동의 건강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3]. 예를 들어, 출생 시 낮은 체중이나 조기 출생은 영아사망률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4]. 또한, 가정 내에서 또는 학교에서 겪는 폭력과 괴롭힘은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큰 요인이며 경제적 문제나 식량 부족은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 권리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4]. 이처럼 아동의 건강 상태는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프로그램과 정책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학교 및 지역사회에 속해 있는 간호사는 이러한 영향요인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 아동의 기본권과 건강 역시 온전하게 보존 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영아 1,000명당 2.5명으로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34개국 중 25위에 해당하는 적은 수이지만 현재 출생률을 고려한다면 우려되는 상태이다[5,6]. 또한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2021년 10만 명당 2.7명이었으며 사망원인 1위였다[7].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아동학대는 더 증가하였는데 가정에서 지내야 하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이다[7]. 이러한 문제들을 아동·청소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국가의 아동복지정책과 그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각 정권은 아동복지정책을 추진해오면서 방향성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동복지정책의 수혜 범위와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8]. 2000년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요보호아동 보호, 아동복지시설 확충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사업이 대부분이었다면[9] 그 이후에는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희망스타트사업, 0-2세아 무상보육사업과 아동급식 지원 등의 보편적 지원 사업들이 시도되었다[8,10].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지원 규모는 미진한 상태이며 저출산 문제, 아동학대 등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1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대한민국의 아동빈곤율은 14.5%로 OECD 평균(13.1%)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심화된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아동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받는 등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2]. 또한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감염병 확산 방지 측면에서 가정양육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경기 침체 장기화 및 비대면 일상화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7,13].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도를 찾기 어려우며 간호학 분야의 아동복지연구는 주로 아동학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4-16]. 아동의 건강은 부모,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같은 복합적이고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영양소 보충, 위생, 예방접종, 심리 사회적 발달 지원, 질병에 대한 가정 간호, 적시 돌봄 추구 등의 중재들이 권고되고 있다[4,16,17]. 때문에 아동의 건강과 생존을 위한 복지는 아동의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다양한 간호 중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간호사의 아동복지정책 연구 참여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효과적인 중재 개발, 다학제적 접근, 아동과 가족의 옹호자로서의 역할 등 여러 이유로 중요하다. 이는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간호 전문가들의 관심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18].

최근 뉴스 기사, 블로그, 트위터나 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이슈나 여론, 인식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19]. 뉴스 기사는 정보를 표현, 전달, 교환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회적 이슈를 다루며, 뉴스를 구성하는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 자료는 사회 전반의 현상 및 트렌드와 함께 사회 환경변화와 사람들의 심리, 감정을 반영하는 잠재적인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19]. 때문에 국가에서 펼치는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뉴스 기사를 분석한다면 아동복지정책의 이슈나 문제점, 그리고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적 시도가 될 것이다.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를 분류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K-means 알고리즘이 있다. K-means 알고리즘은 문서를 특정 주제별로 그룹화하여 클러스터링하는 방법이다[20]. 수집된 뉴스 기사의 텍스트를 TF-IDF로 벡터화하고,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비슷한 주제의 기사를 묶어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주요 주제와 트렌드를 파악하며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20].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실을 분석하기에 유용한 뉴스 기사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정권별 아동복지정책 관련 뉴스 기사를 수집, 분류 및 분석하고, 군집화 작업을 통해 주요 키워드와 주제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과 관련된 시대별 변화를 제고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인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에서 검색되는 “아동복지정책” 관련 키워드를 대한

민국의 정권별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기 위한 온라인 빅데이터 활용 2차 자료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빅카인즈에서 검색식에 의해 검색되는 뉴스 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빅카인즈는 국내 최대의 뉴스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체 언론사 또는 일부 언론사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의 기사는 그 출처가 대다수의 언론사로부터 오는 것이며, 이러한 언론사의 기사는 빅카인즈에서도 동일하게 검색 및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빅카인즈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포털사이트에서 접할 수 있는 뉴스 기사의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등), 경제일간지(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등), 지역일간지(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신문, 광주일보, 대구일보, 전남일보 등), 방송사(KBS, MBC, OBS, SBS, YTN 등), 전문지(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를 포함하여 전체 54개 언론사를 선택하였다. 연구 기간은 빅카인즈에서 뉴스 기사가 검색되는 1990년도 이후 정부부터 검색하였으며 김영삼 정부(1993년 2월 25일~1998년 2월 24일)부터 문재인 정부(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9일)까지이다. 검색 시 키워드는 (아동복지) OR (아동정책) OR (아동복지정책)으로 지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빈도 분석과 시각화에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오픈소스(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로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웹 크롤러를 구현하였다. 인터넷과 웹 크롤러의 통신을 위하여 Requests (<https://requests.readthedocs.io/>), 웹 문서의 정제를 위하여 BeautifulSoup (<https://pypi.org/project/beautifulsoup4/>), Selenium (<https://www.selenium.dev/>) 등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전처리를 위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합치고 편집할 수 있는 pandas (<https://pandas.pydata.org/>), 한글 텍스트에서 명사, 형용사 및 조사 등을 분류하기 위해 KoNLPy (<https://konlpy.org/ko/latest/index.html>)를 사용하였으며 시각화를 위해 Python의 시각화 관련 라이브러리인 Matplotlib (<https://matplotlib.org/>) 등을 사용하였다.

웹 크롤링 결과물은 검색식, 언론사, 뉴스 제목, 기자 이름, 뉴스 작성일시, URL, 본문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한 행에 한 건씩 엑셀 파일에 저장한다. 실제 데이터 분석에는 뉴스 기사의 제목과 본문만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1) 데이터 클렌징(Data cleansing)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숫자, 문장부호, 라틴 문자, 한자 등의 외국어가 포함된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먼저 해당 요소들을 미리 처리하였다. 이는 크롤링으로 얻은 데이터에서 한글만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한글 정규식 패턴(가~힉+)에 일치하는 부분만 추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하였다.

2) 어간 추출(Stemming)

컴퓨터 프로그램은 단어의 조사만 다른 어절을 구별하지 못하므로, 표준화된 분석을 위해 어미나 조사 등을 분리하여 어간만 추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Python 기반의 한국어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인 KoNLPy에서 제공하는 트위터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데이터 클렌징 단계에서 추출된 데이터에서 명사만을 선별하고 어간 추출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정책을”, “아동복지정책이”와 같은 조사만 다른 어절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정확하고 일관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3) 키워드 수 집계

분석을 위해 본격적인 집계를 진행하기 전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은 한 글자로 된 키워드들(-등, 한 큰 등)을 결과에서 제거하는 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자주 사용되는 한국어 불용어 목록을 오픈소스로 공개된 불용어 사전(<https://github.com/stopwords-iso/stopwords-ko/blob/master/stopwords-ko.txt>)을 활용하여 일차적으로 제외 처리하였다. 불용어 사전에 없는 단어들은 직접 불용어로 추가하여 이차적으로 제외 처리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단어들만을 추출하며,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유의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연구자간 논의를 거쳐 불용어 목록에 불용어를 추가하며 분석하였다. 또한 키워드를 추출한 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코로나”, “COVID-19”, “COVID” 같이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키워드는 “코로나”로 대체 및 통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닌 키워드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였다.

4) K-평균 알고리즘 분석(K-Means clustering)

K-평균 알고리즘은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문서들을 군집(cluster)화하는 가장 오래되고 잘 알려진 비지도학습 방법이다^[20]. K-평균 알고리즘은 label이 없는 데이터에 label을 할당함으로써 군집화를 수행한다^[20].

K-평균 알고리즘의 동작은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1. 초기 중심점(centroid) 설정: K개의 중심점을 임의의 위치에 설정한다.
2. 각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중심점을 찾아서 해당 중심점의 군집에 할당한다.
3. 각 군집에 속한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구하여, 새로운 중심점을 계산한다.
4. 새로운 중심점이 이전 중심점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차이가 없을 때까지 2, 3과정을 반복한다.

위의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은 중심점과 데이터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이며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한다[20].

$$\text{Euclidean distance} : \|X - Y\|_2 = \sum_{i=1}^n (x_i - y_i)^2, i = 1 \text{ to } n$$

위의 공식에서 X와 Y는 각각 두 데이터의 벡터를 나타내며, x_i 와 y_i 는 두 벡터의 각 차원값을 의미한다[20]. 군집의 수(K)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경험적 방법, elbow method, silhouette method, gap statistic 등이 있다[21]. 그러나,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집의 수는 데이터의 특성과 분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값을 설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20,21]. 본 연구에서는 elbow method와 경험적 방법으로 군집의 수를 분석하였으며 분류 결과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최종 군집의 수는 연구자 간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5)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군집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에 속한 전체 문서에서 특정한 단어가 문서 내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인 Term Frequency (TF) 값과 특정 단어가 등장한 전체 문서 수의 역수를 취한 값인 Inverse document frequency (IDF) 값을 활용하여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값을 계산하였다. TF-IDF란 TF와 IDF를 곱한 값으로 문서 내에서 키워드가 실제로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값으로 TF-IDF 값이 높은 키워드는 문서 내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22]. 본 연구에서는 군집별로 상위 10개 키워드의 TF-IDF를 각각 추출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IRB No: GWNUIRB-R2023-16).

연구 결과

1. 전체 기간 주요 키워드 및 뉴스 기사 빈도

아동복지정책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아동복지정책 관련 뉴스 기사는 총 8,745건이었으며 상위 30개의 키워드의 빈도수는 77,330개였다. “지원”, “정책”, “사업”, “교육”, “대상자” 순으로 순위가 높았으며 “프로그램”, “행복”, “확장”, “권리”, “노력”은 낮은 순위로 확인되었다. 뉴스 기사가 검색되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아동복지정책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아동복지정책 관련 뉴스 기사는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2019년부터 급격하게 증

Table 1. Keywords Frequency

Rank	Keyword	n	(%)
1	Support	4,984	6.5
2	Policy	3,917	5.1
3	Business	3,667	4.7
4	Education	3,550	4.6
5	Subject	3,342	4.3
6	Center	3,225	4.2
7	Facility	3,118	4.0
8	Protection	3,037	3.9
9	Child	2,977	3.9
10	Institution	2,905	3.8
11	Household	2,804	3.6
12	Nursing	2,796	3.6
13	Offer	2,589	3.4
14	Public health	2,503	3.2
15	Government	2,368	3.1
16	Service	2,284	2.9
17	Environment	2,243	2.9
18	Family	2,226	2.9
19	Health	2,192	2.8
20	Parent	2,042	2.6
21	Youth	2,014	2.6
22	Problem	2,002	2.6
23	Culture	1,950	2.5
24	Life	1,947	2.5
25	School	1,915	2.5
26	Program	1,795	2.3
27	Happiness	1,783	2.3
28	Expansion	1,755	2.3
29	Right	1,733	2.2
30	Effort	1,667	2.2
Total		77,330	100
News (n)		8,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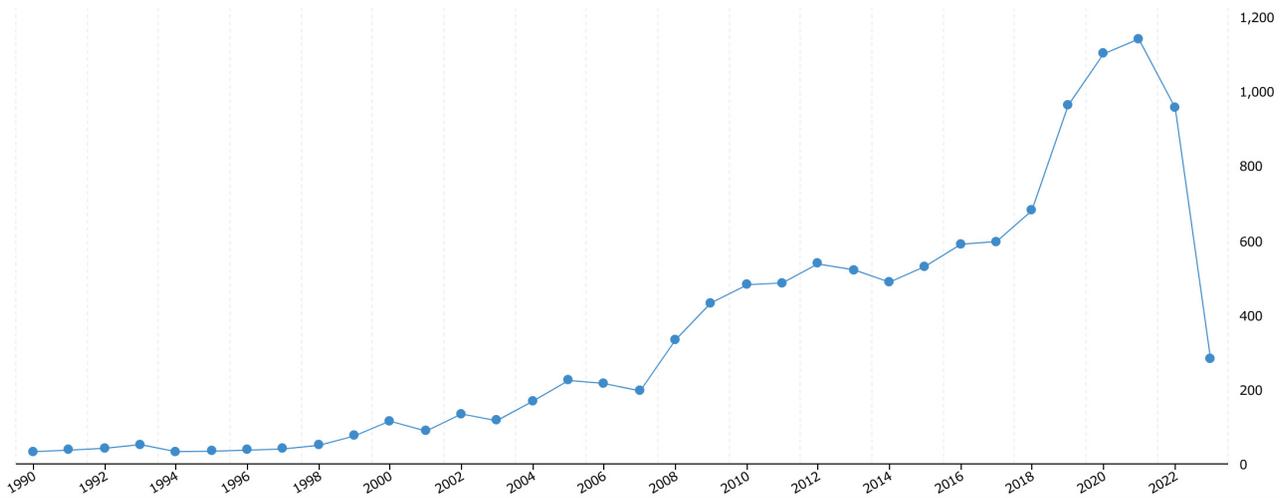


Figure 1. Newspaper article frequency

가하기 시작해 2022년부터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Table 1, Figure 1).

2. 대한민국의 아동복지정책 관련 뉴스 기사 군집 분석

대한민국의 정권별 아동복지정책 관련 뉴스 기사의 군집 분석을 수행한 결과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경우 2개의 군집으로 분류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3개의 군집, 박근혜 정부의 경우 2개의 군집으로 분류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의 경우 3개의 군집으로 분류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였다(Figure 2).

3. 군집을 구성하는 키워드의 TF-IDF

김영삼 정부의 경우 군집 간 공통 키워드는 “대상자”, “사업”, “시설”, “어린이”였으며 공통 키워드를 제외하고 군집1을 구성하는 TF-IDF 상위 키워드는 “교육”, “지원”, “여성” 등이었다. 군집2를 구성하는 TF-IDF 상위 키워드는 “보건”, “모범”, “지원” 등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군집 간 공통 키워드는 “시설”, “어린이”였으며 공통 키워드를 제외하고 군집1을 구성하는 TF-IDF 상위 키워드는 “공로”, “표창”, “유공자” 등이었으며 군집2를 구성하는 TF-IDF 상위 키워드는 “지원”, “교육”, “가정” 등이었다. 노무현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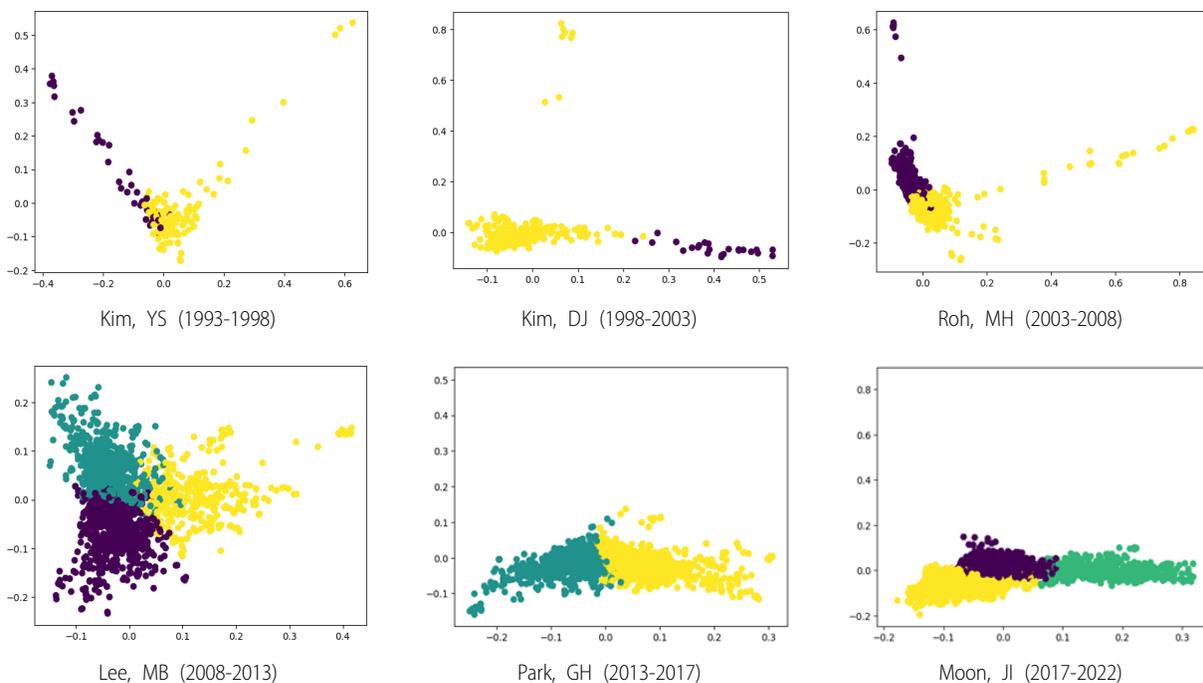


Figure 2. Cluster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on child welfare policies in South Korea.

의 경우 공통 키워드는 “대상자”, “사업”, “센터”, “시설”, “지원”이 있으며 공통 키워드를 제외하고 군집1을 구성하는 TF-IDF 상위 키워드는 “정책”, “정부”, “보건” 등이었다. 군집2를 구성하는 TF-IDF 상위 키워드는 “교육”, “어린이”, “문화” 등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군집 간 공통 키워드는 “교육”, “대상자”, “센터”, “시설”, “지원”이었으며 군집1을 구성하는 TF-IDF 상위 키워드는 “정책”, “문제”, “간호” 등이었다. 군집2를 구성하는 TF-IDF 상위 키워드는 “어린이”, “사랑”, “사업” 등이었으며 군집3을 구성하는 TF-IDF 상위 키워드는 “사업”,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등이었다. 박근혜 정

부의 경우 군집 간 공통 키워드는 “지원”이었으며 군집1을 구성하는 TF-IDF 상위 키워드는 “어린이”, “사업”, “대상자” 등이었으며 군집2를 구성하는 TF-IDF 상위 키워드는 “정책”, “간호”, “대상자” 등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군집 간 공통 키워드는 없었으며 군집1을 구성하는 TF-IDF 상위 키워드는 “지원”, “정책”, “사업” 등이었고 군집2를 구성하는 TF-IDF 상위 키워드는 “아동친화도시”, “정책”, “아동정책” 등이었으며 군집3을 구성하는 TF-IDF 상위 키워드는 “대상자”, “정책”, “보호” 등이었다(Table 2).

Table 2.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of Keywords Constituting Clusters

Cluster		1	2	3	4	5	6	7	8	9	10
Kim, YS (1993-1998)	1	Keyword Subject	Facility	Education	Children	Support	Business	Women	Household	Problem	Protection
	TF-IDF	20.91	19.55	18.00	17.72	17.61	17.24	16.57	16.13	15.91	14.79
	2	Keyword Facility	Business	Children	Public health	Subject	Example	Support	Children's Day	Commen- dation	Meritorious Individual
	TF-IDF	7.69	7.59	6.49	6.26	5.42	5.40	5.34	5.13	4.99	4.79
Kim, DJ (1998-2003)	1	Keyword Merit	Commen- dation	Facility	Meritorious Individual	Demand	Children's Day	Children	President	Public health	Principal
	TF-IDF	11.36	10.74	10.63	10.47	10.37	10.14	9.82	9.28	8.51	8.36
	2	Keyword Facility	Children	Support	Education	Household	Business	Protection	Problem	Subject	Institution
	TF-IDF	54.81	45.45	45.3	43.19	42.43	40.57	39.07	36.64	34.85	34.48
Roh, MH (2003-2008)	1	Keyword Subject	Policy	Support	Government	Business	Public health	Facility	Education	Protection	Center
	TF-IDF	76.92	73.85	71.79	64.2	63.53	62.94	61.88	60.03	59.98	59.71
	2	Keyword Support	Facility	Business	Education	Children	Center	Subject	Culture	Household	Foundation
	TF-IDF	66.3	62.16	60.23	57.55	56.9	52.05	51.43	51.19	50.99	43.93
Lee, MB (2008-2013)	1	Keyword Policy	Support	Education	Problem	Center	Nursing	Government	Public health	Facility	Subject
	TF-IDF	116.5	109.87	99.84	98.85	98.11	97.99	92.64	87.48	86.86	84.71
	2	Keyword Facility	Support	children	Center	Love	Business	Subject	Education	Household	Institution
	TF-IDF	112.46	112.04	111.69	100.58	90.59	88.35	87.97	86.95	86.09	85.03
	3	Keyword Support	Subject	Center	Business	Service	Offer	Community Child Center	Low- income	Education	Facility
	TF-IDF	74.23	74.07	72.19	68.77	64.73	62.16	61.18	60.85	59.67	57.16
Park, GH (2013-2017)	1	Keyword Support	Children	Business	Subject	Center	Facility	Education	Program	Institution	Foundation
	TF-IDF	140.35	122.29	118.59	114.9	114.06	113.13	110.5	104.28	103.9	95.56
	2	Keyword Policy	Support	Nursing	Subject	Government	Education	Protection	Business	Public health	Institution
	TF-IDF	146.34	135.17	127.96	125.82	123.17	119.18	116.55	111	105.05	102.92
Moon, JI (2017-2022)	1	Keyword Support	Policy	Business	Center	Children	Subject	COVID-19	Education	Offer	Facility
	TF-IDF	318.87	281.92	276.84	276.43	268.51	266.71	264.54	254.79	252.94	234.47
	2	Keyword Child Friend- ly Cities	Policy	Child Policy	Right	Compos- ition	Opinion	Education	Youth	Business	Structure
	TF-IDF	327.39	115.88	114.63	111.74	107.99	100.13	98.54	97.61	96	93
	3	Keyword Subject	Policy	Protection	Abuse	Government	Support	Nursing	Public health	Household	Institution
	TF-IDF	223.88	208.36	202.33	192.6	191.72	188.32	185.99	183.25	175.68	175.3

4. 군집별 뉴스 기사 제목

김영삼 정부의 경우, 군집1은 대부분 보살핌과 빈곤계층에 관

한 뉴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군집2는 어린이날 행사와 모범어린이 또는 복지유공자에게 수여되는 훈·포장 및 표창 뉴스가 대

Table 3. Top Newspaper Article Headlines for Each Cluster

Government	Cluster	Examples of news headlines related to clusters.
Kim, YS (1993-1998)	1	Providing Care for Children in the Low-income Bracket
		Amendment of Early Childhood Law to Promote Childcare Servic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rafts Increase of 7,500 Childcare Facilities by 1997 Commendation of 115 Exemplary Children
Kim, DJ (1998-2003)	2	Today is Children's Day/Nationwide Colorful Commemorative Events Commendation for 208 Exemplary Children's Welfare Meritorious Individuals
		Honors and Commendation for 19 People on 'Children's Day' Diverse Commendations and Events for Children's Da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mmends Exemplary Children and Meritorious Individuals [Tracing the Issue] Increasing Child Abuse Cases
Roh, MH (2003-2008)	1	[Tracing the Issue] Seeing Missing Children, Finding Them Like 'Finding Stars' Children Unable to Receive Protection at Home
		Additional Selection of 16 Locations, Including Busanjin-gu, for Children's Welfare "Hope Start" this Yea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pects Efficiency in Child Welfare and Childcare Work 5,600 New Jobs in Social Service Sector [Warm Winter Ahead] Large Companies "Giving Back to Society"
Lee, MB (2008-2013)	2	Building a World We Live Together, Social Contribution/ LG, Donations from Employees and Companies with "Matching Grants" [Social Contribution Enterprise Grand Prize] GS Home Shopping..."Instilling Dreams in Underprivileged Children"
		Children Spending the Year-end at Childcare Facilities [Children Left Behind' 9,000 Cases per Year, Bringing Hope to Them] Foster Parents Abandoning Them, Protection Facilities Full Secret Offers of "Taking the Child Away"... Underground Adoption Being Transacted 'Supporters' Emerging to Help Independent Living of Foster Children
Park, GH (2013-2017)	3	Seniors Stepping Up to Support Independent Living of Foster Home Juniors "Taking Care of Children with a Mother's Heart" Providing Customized Welfare Services for Low-income Children
		Full Implementation of Children's Welfare Dream Start Project [Seeking the Path of Welfare in Korea] <Part 2>(2) The Inheritance of Poverty, Vulnerable Children Expansion of Wonju Dream Start Project
Moon, JI (2017-2022)	1	Positive Response to Sokcho Dream Start Project Activating 'Dream Start' to Break the Cycle of Poverty Child Abuse II: Solutions from Overseas Cases <2> Differences in System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Let's Solve the Issues with Childcare Centers" ...Gunsal Consultant and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ollaborate Child Abuse Cases Happening Continuously, What Do the Courts Decide... Decreased Reporting of Child Abuse after COVID-19 "Actually a Risk Signal"
Moon, JI (2017-2022)	2	"Let's Jump Freely After COVID-19"...Nationwide Festivities on Children's Day "Even COVID-19 Couldn't Stop Korea's Overwhelming International Adoption System" Hwaseong-gun Establishes First 'Child-friendly City' in the Region
		Seoul Jung-gu Actively Fostering a 'Child-friendly City' Incheon Seo-gu Establishes 'Comprehensive Action Plan for Child-friendly City' Introduction of Dedicated Civil Servants for Child Abuse, Strengthening Management of At-risk Children
Moon, JI (2017-2022)	3	Investigation of 26,000 Three-year-old Children for "Neglect, Abuse, or Suspicion"...3 Cases of Abuse Found 95% of Child Abuse Committed by Parents...Unrepentant Adults

부분이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군집1은 대부분 어린이날과 관련된 뉴스이며, 군집2는 요보호아동에 관한 뉴스가 많았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군집1은 아동복지사업과 아동복지서비스 개편 관련 뉴스가 대부분이었고, 군집2는 대기업이나 사기업이 아동을 후원하는 뉴스가 많았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군집1은 요보호아동 관련 뉴스가 대다수이며, 군집2는 요보호아동을 돕거나 돌보는 지원자들에 관한 뉴스가 많았다. 군집3은 저소득층이나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를 다루는 뉴스가 많았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군집1은 드림스타트와 같은 아동복지센터 사업을 시행 또는 확장하는 뉴스가 대부분이었으며, 군집2는 아동학대를 다루는 뉴스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우 군집1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아동 관련 뉴스가 대부분이었으며, 군집2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추진하는 뉴스가 많았다. 그리고 군집3은 아동학대를 주제로 한 뉴스가 대부분이었다(Table 3).

논 의

대한민국의 아동복지정책 관련 뉴스 기사를 분석한 결과, 관련 뉴스 기사는 매년 증가하였다. 이는 온라인 뉴스 생산 주체의 증가로 인해 전통 언론사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매체들이 온라인을 통한 뉴스 생산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23]. 특히 2019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외부 활동이 제한되어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삶의 질, 영양을 포함한 건강 수준 격차의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7], 관련 뉴스 기사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정책 관련 뉴스 기사의 상위 다빈도 키워드는 “지원”, “정책”, “사업”, “교육”, “대상자”였는데 아동은 지원하고, 교육하고 사업을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동은 단순히 지원받는 대상이 아니라 권리주체로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행복”, “권리”, “확장” 등의 키워드는 상위 30개 포함되었는데, 이는 아동을 주체적 및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광범위한 뉴스 기사에서 각 정권의 아동복지정책과 관련한 어떤 주요 이슈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한 군집분석 결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두 가지 주요 주제로 군집화되었고,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세 가지 주요 주제로 군집화되었다.

먼저 두 가지 주제로 군집화 된 정부의 주요 키워드와 뉴스 기사를 통해 군집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에서는 보

육법의 개정 및 시설 확장, 김대중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문제가 부각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 아동 지원이 확대되면서 관련 주제가 부각되었으며 아동복지센터의 선정과 아동복지의 효율성 개선, 사회공헌과 대기업의 기부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존의 정책과 지원에 대한 뉴스가 대부분이었지만, 아동학대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뉴스도 주요했다.

과거 김영삼 및 김대중 정부에서는 보육법의 개정 및 시설 확장, 아동학대 문제 등의 이유로 아동복지 증진의 필요성을 인식해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 및 보건 서비스의 확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였다[9]. 이 기간에 아동보호법이 제정되고 아동복지시설이 확대되었으며,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그리고 가출 또는 학교 이탈 청소년과 같은 취약 아동들을 위한 사업이 시작되었다[9]. 아동에게 학대나 폭력은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피해는 장기적이고 심각할 뿐 아니라 그 영향은 일생에 걸쳐 계속된다[7]. 학대 및 폭력 예방, 조치, 상담,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에게는 간호 전문가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더불어 학대와 폭력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법적 시스템의 지원도 중요하다. 안전한 환경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필수적이며,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7]. 아동학대 문제가 부각된 김대중 정부부터는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안정적인 환경 제공과 관련된 복지정책이 도입되었다[9]. 이러한 정책들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보장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영삼과 김대중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은 문제의 치료와 재화에 중점을 둔 반면, 예방 측면의 실행방안은 부족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었다[9].

노무현 정부에서는 복지의 본격화와 함께 아동복지시설의 품질 향상과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아동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9]. 특히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통합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였다[9]. 노무현 정부에서 추구한 아동복지사업으로는 희망스타트, 아동안전대책, 빈곤아동, 희망스타트,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등 빈곤 예방 및 기회의 평등, 인적 자본의 근본적인 육성, 아동세대에 대한 예방적 사회투자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9].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는 희망스타트 센터를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간호학, 아동학, 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사업기획에 대한 자문을 통해 보건·복지·교육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국가의 이러한 노력들은 이전 정부에서 미흡하다고 평가 받았던 요보호아동의

안전사고의 조기 예방적 접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의 건강, 안전 발달을 중요시하며, 예방적 사회투자과 협력을 강조하였다. 특히 통합적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를 전문가로 참여시켜 사업 자문 의뢰 등의 역할을 맡겨, 간호사가 아동과 가족, 그리고 사업 담당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명박과 문재인 정부는 총 세 가지 주제에 따라 군집화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요보호아동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었으며, 요보호아동 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자립을 위한 멘토링도 주요 뉴스 주제로 존재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아동친화도시,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된 주제가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과거 정부에서는 주로 아동학대와 요보호아동 및 복지 시설에 대한 뉴스 기사가 나타난 것에 비해 가장 최근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아동친화도시” 관련한 이슈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추구하며, 경제 성장을 동반하는 복지 정책을 펼쳤다[10]. 이는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자본의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서비스”라는 용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아동복지 예산이 증가하였고, 이는 아동들의 생활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10]. 아동들은 더 많은 지원과 시설, 교육을 받게 되었고, 자립을 돕는 새로운 제도들도 도입되었다. 이런 변화들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7,8].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 및 정서적 문제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7,8].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 정부와 다른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연령층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아동들은 그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았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수업, 학교와 어린이집의 임시 휴업은 아동들의 일상생활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7]. 아동들은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상실하고, 그 결과로 정서적 스트레스, 고립감, 무기력감 등의 문제가 증가하였다[24].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아동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심리적 지원, 일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 그리고 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들의 정서적 건강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였다[24]. 새롭게 등장한

“아동친화도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의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25].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은 주체가 되며, 아동의 필요, 의견, 목소리, 활동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단체장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26].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등을 주 아동복지사업으로 펼쳤던 만큼[27], 아동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환경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아동들은 그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4]. 아동친화도시는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한 놀이 공간, 교육 시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공간을 제공한다[18,24,26]. 이러한 도시 구조는 아동들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18,24,26]. 따라서, 최근 정권에서 강조되는 아동복지정책의 새로운 주제와 키워드는 아동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로 여겨질 수 있다. 최근의 아동복지정책 변화는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주제들이 아동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7], 복지정책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정부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과거부터 최근 정부까지 꾸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아동학대 이슈가 있다.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유엔으로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권고를 받았다[27]. 이후 2000년에는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아동의 권리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국내에서의 아동학대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28]. 특히, 2013년에 발생한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국민들의 눈길을 아동학대 문제로 집중시켰다[28]. 이처럼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점차 공개됨에 따라 국민들의 아동학대 근절 요구가 커졌다[27,28]. 이에 2014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더불어 장기결석 전수조사, e아동행복지원서비스 등의 정책도 도입되었다[28].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영한 정책적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예방적 차원의 정책은 부족하였고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위한 정책일 뿐이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아동학대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단순한 신체적 손상을 넘어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나아가서 성인이 되어서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3,7]. 때문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2020년 10월부터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전국 229개 시·군·구에 배치하여 아동보호 서비스의 공적 전달체계를 구축,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29,30]. 이러한 정책들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그리고 공적 대응 수준을 높였다고 평가 받는다[13]. 그러나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으며, 인력 또한 복지부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4시간 당직이 잦아 기피 부서로 평가 받아 전문성을 갖출 시간이 없는 현실이다[30].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회복지사를 자격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대부분이 일반 공무원인 현실이다. 간호사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아동학대의 징후를 누구보다 잘 관찰할 수 있고,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학대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아동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간호사는 아동학대 발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에도 해당 영역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는 학대의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많고 학대는 은밀한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 등의 아동학대 사례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30].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장, 즉,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30].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를 위한 정책에 간호 전문가를 적극 투입할 것을 고려해야한다. 간호 전문가들은 아동보호팀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아동학대의 예방, 발견, 후속 관리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신체적 손상과 함께 깊은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간호와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2,7,8]. 이러한 노력들로 아동학대 문제를 점차 줄여나가며,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초기 정권에서는 전통적인 아동복지정책 주제로 군집화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정권에서는 아동복지정책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에 따라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확대되고, 다양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정부의 아동복지정책이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다[8]. 때문에, 간호사 및 간호학 연구자들이 아동의 건강, 안전 그리고 행복에 중점을 둔 연구와 증재 개발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간호 증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별 아동복지정책의 주요 이슈와 변천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아동학대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아동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으로의 아동복지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로는 아동복지정책의 실질적 효과나 아동의 실질적 복지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복지정책의 효과나 아동의 실질적 복지 상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정권별 아동복지정책 관련 뉴스 기사를 TF-IDF와 K-평균 알고리즘을 통해 수집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성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정권에서 요보호아동 및 아동학대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동의 권리와 의견이 보다 중요시되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보호팀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인력과 예산 확충 등 아직까지 아쉬운 평가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 전문가의 적극적인 투입이 필수적이다. 간호 전문가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 분야에서 간호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K-평균 알고리즘이 텍스트 데이터, 특히 뉴스 기사와 같은 대량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류하고 주제별로 구분하는 데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입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K-평균 알고리즘은 다양한 연구와 실무에서의 텍스트 데이터 분석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부의 공식 발표나 보고서 등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연구를 수행할 때는 정부의 공식 발표나 보고서 등을 분석 대상으로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결과를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정책과 관련된 뉴스 기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지만, SNS 등 사회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보다 다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ORCID

Kim, Eun Joo <https://orcid.org/0000-0002-1554-3927>
 Kim, Seong Kwang <https://orcid.org/0000-0002-8029-2722>
 Park, Bit Na <https://orcid.org/0000-0002-6266-1002>

REFERENCES

-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ternet]. Seoul: NCRC; 2023 [cited 2023 May 16]. Available from: <https://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6&cntntsd=1148>
-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Child welfare programs [Internet]. Seongnam: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2023 [cited 2023 Jan 12]. Available from: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4245>
- Park SK. Roles of responsibilities of communities in promoting healthy development in childre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20;5:43-57. <https://doi.org/10.23062/2020.05.5>
- Bozzini AB, Bauer A, Maruyama J, Simoes R, Matijasevich A. Factors associated with risk behaviors in adolescence: A systematic review. Brazilian Journal of Psychiatry. 2020;43:210-21. <https://doi.org/10.1590/1516-4446-2019-0835>
- OECD. Infant mortality rates (indicator) [Internet]. Paris: OECD; 2023 [cited 2023 June 22]. Available from: <https://data.oecd.org/healthstat/infant-mortality-rates.htm>
- OECD. Population (indicator) [Internet]. Paris: OECD; 2023 [cited 2023 June 22]. Available from: <https://data.oecd.org/pop/population.htm>
- Statistics Korea. Children and youth well-being in Korea 2022 [Internet]. Dajeon: Statistics Korea; 2023 [cited 2023 June 22]. Available from: https://kostat.go.kr/board.es?mid=a90101010200&bid=11887&tag=&act=view&list_no=422754&ref_bid=
- Yang JH. A study on integrated analysis of child welfare policy in Korea.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2014;23(3):365-84.
- Chung IJ. Evaluation of Roh Moo-hyun government's child policy and future tasks of the next government.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2007;14(2):282-313. <https://doi.org/10.17000/kspr.14.2.200801.280>
- Tchoe B. The past and future of Korea's social welfare policy. Journal of Budget and Policy. 2014;3(1):89-129. <https://doi.org/10.35525/nabo.2014.3.1.003>
- So JS. Urgent need for introducing birth notification system to ensure children's rights [Internet]. Seoul: Baby News; 2023 [cited 2023 May 3]. Available from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651>
- Rye JH. Policy considerations for the continuity and integration of child and adolescent protection servic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21;6:7-21. <https://doi.org/10.23062/2021.06.2>
- Chung IJ, Lee SJ, Kang HJ. Changes in children's everyday life and emotional condition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020;69(4):59-90. <https://doi.org/10.24300/jkscw.2020.12.69.4.59>
- Cho YH, Chung Y. Child abuse recognition and related factors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2013;38(2):85-96. <https://doi.org/10.5393/JAMCH.2013.38.2.085>
- Kim YH, Lee NY, Yoon EY. A survey on perception of child abuse among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06;10(2):189-97.
- Kim EJ, Kim HR.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arenting attitudes and the recognition of child rights and child abus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3;24(4):319-27. <https://doi.org/10.5762/KAIS.2023.24.4.319>
- Hernandez VR, Montana S, Clarke K. Child health inequality: Framing a social work response. Health and Social Work. 2010;35(4):291-301. <https://doi.org/10.1093/hsr/35.4.291>
- Nam SY, Lee NY. A case study on the child-friendly city. Policy report. Suwon: Gyeonggi-do Women and Family Foundation, 2016 December. Report No: 2016-32.
- Yoon Y, Kim SK, Kim HK, Kim EJ, Jeong YE. Comparison of topics related to nurse on the internet portals and social media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era using topic modeling. Th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020;27(3):255-67. <https://doi.org/10.5953/JMJH.2020.27.3.255>
- Kodinariya TM, Makwana PR. Review on determining number of cluster in K-means clustering. International Journal. 2013;1(6):90-5.
- Sinaga KP, Yang MS. Unsupervised K-means clustering algorithm. IEEE Access. 2020;8:80716-27. <https://doi.org/10.1109/ACCESS.2020.2988796>
- Blei DM, Ng AY, Jordan MI.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2003;3:993-1022.
- Song H, Yang J. Online news portal service and changes in news distribution. Asian Communication Research. 2017;61(4):74-109. <https://doi.org/10.20879/kjcs.2017.61.4.003>
- Son SJ, Park HY, Jeong JH. A study on improving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e COVID-19 social disaster situation. Children's Light. 2021;10:1-117.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public of Korea. Creating a happy nation for children. announcement of inclusive country child policy [Internet].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public of Korea; 2023 [cited 2023 April 19]. Available from: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1072>
- Kim DH, Lee JH, Jang HJ. Key issues and future challenges of parenting policies based on big data. Research Report.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1 December. Report No: BR2101.
- Rye JH. Child maltreatment and improvement direction for child protection system.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17;247:5-23. <http://dx.doi.org/10.23062/2017.05.2>
- Oh S, Kang H. Analysis of news on child abuse based on the major policy changes: using text mining.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021;70(3):1-31. <https://doi.org/10.24300/jkscw.2021.09.70.3.1>
- Ahn S, Oh U, Lee SJ, Lee Y. The 2022 Prospects and issues for social service polic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22;1:56-72. <https://doi.org/10.23062/2022.01.5>
- Lee T. The operation status of the public child protection system in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Focusing on Eunpyeong-gu, Seoul. Children's Light. 2021;116:80-96.